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7호 【루계 제25806호】 주체106(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전력, 석탄공업부문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자

오늘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당이 제시한 전략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전력과 석탄공업부문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필승의 신심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가지고 억경을 슬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 혁명적령도방식이다.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과업과 방도들에는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기치드높이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자기의 힘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가 백박치고있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온 나라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적기상이 약동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대진군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오를수 있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석탄은 공업의 생명선이다. 전력, 석탄생산을 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동력과 연료, 원료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철강재와 비료, 세멘트와 기계설비, 갖가지 화학제품들과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자면 결정적으로 전력과 석탄생산을 추켜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경제봉쇄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오늘 전력, 석탄전선은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도제재를 짓부시는 최전선과 같으며 전력증산의 동음, 석탄산의 높이이자 경제강국건설속도이다. 우리는 전력, 석탄공업부문에서 혁신적앙양을 일으키고 그에 기초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킴으로써 미제의 제재압박책동에 철추를 내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봉쇄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전력,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올해에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나라의 수력자원이 줄어든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올해에 례년에 없이 비가 적게 내리고 고온현상이 계속된것으로 하여 수력발전소들의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에네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판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이다. 동력과 연료, 원료수요를 충족시켜야 올해전투승리의 화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경제강국건설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조시킬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혁명적대응전략에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조성된 난국을 파감히 맞받아뚫고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깃들어있다. 우리는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최대의 힘을 돌려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특대사변들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영웅신화들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 공업의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강의한 사상정신력에서 난관을 돌파하는 능숙한 조직적수완도 나오고 자력갱생의 투쟁본때도 생기며 과학기술의 위력도 발휘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불빛, 인민의 웃음을 지키선 전초병이라는 비상한 책임감,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여야 한다. 전화의 로동계급처럼 한몸이 그대로 발전기가 되고 착암기가 되여서라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석탄을 보장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증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워야 한다.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공정들에서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선진기술과 능률높은 설비들을 적극 받아들여 연소효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수력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효률높은 수차를 도입하며 물관리를 과학화하여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 이미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을 정비하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며 새로운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전력생산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석탄생산을 늘여야 한다.

석탄이자 전력이고 석탄이 팡팡 생산되여야 동력과 연료, 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탄광들에서는 이미 있는 채탄장들에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새로운 탄밭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여 만가동을 보장하며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합리적인 채탄망법과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도입하여 석탄생산량을 늘여나가야 한다. 화력탄보장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화력발전소들에서 석탄에비를 조성하여놓고 전력생산을 순간도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하여야 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전력, 석탄전선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을 가지고 전력, 석탄증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내각에서는 전력, 석탄생산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경제적대책들을 세우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지도를 짜고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발전소들과 탄광들에 필요한 연료와 철강재, 통발나무 등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전량 무조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현실적조건에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화력탄을 비롯한 전력, 석탄생산에 필요한 물동량을 긴급수송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이 발전소와 탄광들에서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도입하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며 우리의 자원으로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전기와 석탄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송전계통에서의 도중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전력소비가 큰 공정들을 대담하게 정리, 갱신하여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키며 건설부문에서는 에네르기절약형건물들을 일떠세워야 한다. 도, 시, 군들과 모든 단위들에서 400kW능력의 태양빛발전설비들을 리용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보장하는 류원신발공장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풍력과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여 주민용전력과 자기 단위의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한다.

절약이자 생산이며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수도물도 아껴쓰는데 애국의 마음이 비낀다. 누구나 자신들이 소비하는 전기와 석탄이 다 인민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쳐나게 하기 위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절약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전력,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침입식정치사상사업, 화선식선전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이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으로 전력생산자들과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이 전력, 석탄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전투지휘를 박력있게 하며 전진하는 대오의 기관차가 되도록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동력과 연료, 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켜 누구나 전기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온 나라가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열의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발전소들과 탄광들의 전투현장에 내려가 생산자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도와주는 사업을 통이 크게, 일관성있게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모두다 불타는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전력, 석탄증산과 절약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섬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자.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가장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저희들은 오늘 로씨야의 쏘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련대성연단을 진행하고 당신께 이 편지를 올리는 영광을 지니는바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전체 연단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세계청년학생운동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각하께와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축전기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이 인류공동의 지향과 념원이며 반제자주의 길에 우리의 행성을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의 행성으로 만드는 근본방도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이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조선반도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장본인이라고 다시금 락인하였습니다.

조선민족의 통일을 떠나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생각할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떠나 동북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유엔무대에서 온 세상을 향해 조선의 《완전파괴》와 2 500만 공화국인구의 절멸이라는 폭언을 늘어놓아 조선반도정세를 통제불능의 최악의 위기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발언을 조선뿐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합니다.

아울러 트럼프의 망발과 관련하여 당신께서 천명하신 성명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하여 취하시게 될 모든 자위적조치들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냅니다.

가장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오늘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국의 야만적인 초강경제재와 압박속에서도 굴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는 귀국의 현실에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과 세계평화의 수호자이신 당신께서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시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당신께서 이끄시는 조선의 훌륭한 모범을 따라배워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며 그 길에서 조선인민과 청년들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조선의 자주적통일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세계의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정의와 승리의 기치이신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중대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련대성연단 참가자일동

2017년 10월 19일 쏘치

조선로동당은 강위력한 혁명적당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마치와 낫, 붓이 새겨진 조선로동당의 당기는 사회주의수호전과 반제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이 보내여온 축전의 한 대목이다.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준엄한 력사의 돌풍을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조선로동당의 70여성상의 력사는 인민대중을 이끌어 세기적변혁을 창조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라고 한결같이 격찬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1945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을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존경을 받고있다.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는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천리마속도로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에 들어섰으며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고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스웨데에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왔다.

조선로동당은 당 제7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정화를 수호하고 나라를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불패의 보루로 건설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자강력의 위대한 정신으로 조선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강화발전되여온 조선로동당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가장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눈부신 기적들을 창조하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동해학원 준공식 진행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동해지구 원산시에 원아들을 위한 또 하나의 멋쟁이궁전이 일떠섰다.

동해학원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후대들에게 마련해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학원에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실험실습실 등이 있는 교사와 원아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려진 기숙사, 식당, 체육관을 비롯한 모든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마련된 동해학원 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되였다.

인민보안상 최부일동지와 관계일군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 학원원아들, 교직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최부일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령도밑에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시기에 동해학원 준공식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동해학원은 새 세대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따뜻이 품어안아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솟아난 원아들의 요람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학원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건설 전과정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인민보안성, 인민내무군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학원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으며 많은 단위들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공사를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온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친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일군들과 학원종업원들이 모든 원아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충폭탄으로,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학원교직원들은 자질을 높이고 교육내용과 방법, 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원아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그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원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며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건물들과 시설물들, 비품들을 정히 다루고 관리를 짜고들어 당의 사랑과 은정을 깊이 전해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학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원아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되게 함으로써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원아들과 함께 훌륭히 꾸려진 학원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18)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은인

조선혁명박물관의 18호실에 들어선 참관자들과 함께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이라는 글발이 부각되어있는 벽면앞으로 다가섰다.

이 호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고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신데 대하여 보게 된다고 하면서 강사는 해설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당창립대회와 11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각 정당, 각파와의 련합을 실현하고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우며 그에 의거하여 북조선중앙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각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방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고 공고히 하게 하시였으며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지방정권기관들을 정비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신 사실, 지방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는 사업이 주체34(1945)년 11월말까지 북조선 각 도에서 성과적으로 결속된 사실들은 우리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의 나날들을 뜨겁게 전해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8일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협의회에서 《북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벽면에 전시된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새겨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대표협의회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의 대표들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벽면에는 대표협의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데 대한 신문자료,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20개조정강》의 친필원고, 북조선행정10국이 조직된데 대하여 실은 신문자료 등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들은 우리를 못 잊을 력사의 그 나날에 세워주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을 진감하던 《김일성장군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정녕 그날의 만세소리는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안겨주신 위대한 은인께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였으며 수천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수반으로 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외침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인 정권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고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던것이다.

발걸음을 옮기며 다음벽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3.1운동 27주년 평안남도경축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안겨왔다. 영상사진문헌아래에 력사의 그날 토지문제해결을 위한 강령적과업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보여져있었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농촌실정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 등을 확정하신데 대하여서와 주체35(1946)년 3월초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시고 토지개혁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의 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토지개혁을 요구하여 각지 농민들이 올린 진정서와 결의문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 발포하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실은 신문자료, 농업현물세제에 관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서, 토지개혁과 농업현물세제의 혜택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된데 대한 신문자료 등은 참관자들의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그중에는 력사의 그 나날을 방불하게 보여주고있는 사진자료들도 있었다. 《토지개혁법령 만세》 등의 글발을 새긴 프랑카드를 들고 감격의 환호성을 터치는 농민들, 몸이면 피땀을 뿌리고 가을이면 피눈물을 거두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된것이 꿈만 같아 끝없는 환희에 넘쳐있는 사람들, 밭갈이에 떨쳐나선 농민들…

그 화폭들을 바라보며 참관자들은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시여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저시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

다음벽면우에 부각된 이 글발앞에서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산업국유화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등 잡소리를 줴치였다고 한다. 이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처갈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은 로동자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공장위원회들을 널리 조직하여 국유화대상으로 되여있는 산업시설들과 경제기관들을 장악하고 관리운영하며 그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통제와 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도록 하시였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고 하면서 중요산업국유화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산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중요산업시설들이 전인민적소유로 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인민정권수립,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실시, 참으로 그것은 우리 인민을 정권의 주인,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되게 한 거대한 혁명이였으며 인민을 하늘처럼 어기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사변이였다. 이런 격정에 휩싸여있느라니 우리의 뇌리에 우리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 글줄이 떠올랐다.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정녕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의 념원을 헤아리시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신 우리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있었기에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민주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실시될수 있은것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발포로 굴욕과 천대, 멸시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우리 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정적으로 해설하는 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대육 확신할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교육과 문화, 사법, 검찰분야에서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을 보여주는 벽면앞으로 향하였다.

창평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3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해 4월 북조선인민교원직업동맹결성대회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진보적민주주의원칙에서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양체계를 세우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적교육제도가 수립된데 대한 신문자료, 위대한 수령님께 창평학교 학생들이 삼가 올린 지수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연필 등 전시물들이 그 나날의 감동깊은 사연들을 전해주고있었다. 새 민주조선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도 참관자들은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다음호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해방후 짧은 기간에 우리 조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였고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진정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 우리 수령님과 같이 인민을 위하여 이렇듯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던가.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민족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철석같은 의지가 넘쳐흘렀다.

글 본사기자 김 성 남
사진 본사기자 리 충 성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시며

사회주의 내 조국땅 그 어디에나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지게 하시려 한평생을 다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어느해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방의 한 산간벽지에 머무르게 되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과 함께 낚시질을 하시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강가로 나오시였다.

그이를 따라선 일군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실리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느라 언제 한번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시나마 피로를 푸실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윽고 강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낚시대를 드리우시였다. 한마리, 두마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거퍼 산천어를 낚아내시였다.

일군은 너무도 신이 나서 고기가 물릴 때마다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런데 연방 물려나오던 고기가 좀좀해졌다.

(웬일일가?)

일군은 궁금하여 수면에 눈길을 돌렸다. 큼직한 고기가 미끼를 물었는지 물우에 뜬 깜부기가 련속 숨박꼭질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낚시줄을 당기실념을 하지 않으시고 물면우의 한곳에 눈길을 보내신채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일군은 그이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고기가 물렸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제서야 사색에서 깨어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낚시대를 잡아채시였다. 그러자 큰 산천어 한마리가 먹이를 통채로 삼킨채 끌려나오더니 풀밭에 털썩 하고 떨어졌다.

일군은 저도모르게 환성을 지르며 풀밭으로 달려가 펄떡펄떡 뛰는 산천어를 두손으로 붙잡았다. 그러는 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놈의 고기가 남의 사색을 다 빼앗아갔다고 하시였다.

일군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잠시 동안을 두고 산천어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로 눈길을 돌리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낚시질을 하면서 보니까 어기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수력자원이 풍부하단 말이요. 낚시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작은 강줄기들이 합치는 목이 있는데 거기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우에 조금 올라가서 또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작은 강줄기에도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면 긴장한 전기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소. 전기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나라는 잘살수 있소.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더 높아질수 있단 말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는가 늘 마음쓰시며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본사기자 정 순 학

깊이 관심하신 려객수송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어느해 12월이였다. 아침일찍 사무실에 들어서던 한 일군은 뜻밖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옵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수도의 긴장한 려객수송문제를 해결하자면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은 뻐스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적인 투자를 해서 뻐스를 더 늘어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주의깊게 듣고 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주되는 원인인것 같지 않다고, 이럴 때에는 현실에 나가 군중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실태를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친히 그 대상까지 정해주고 자리를 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무실을 떠나신 얼마후 그는 다른 한 일군으로부터 그이께서 아침일찍 사무실을 찾아주신 사연에 대해 알게 되였다.…

이날 새벽 교외의 한 협동농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뻐스정류소앞을 지나시다가 몹시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시여 길건너편에 있는 뻐스정류소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녀인에게 늘 뻐스가 이렇게 늦어지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게 된 녀성은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머칠전부터 뻐스가 좀 늦어지는데 그렇다고 하여 별로 불편을 느끼는것은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오래 기다리는데 왜 불편하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과 동행하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문제를 자신께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아침 일군의 사무실을 찾아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일군은 즉시 해당 단위에 내려가 인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실태를 료해하였다.

알아보니 문제는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자각이 부족한데로부터 인민생활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돌보지 않는데 있었다.

현지에서 돌아온 일군이 올리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에상한바대로라고 하시면서 안색을 흐리시였다.

이날 저녁 일군을 또다시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그동안 생각을 적어보았는데 참고되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하나의 문건을 넘겨주시였다.

문건을 들어다보는 일군의 가슴은 마냥 뜨거워졌다.

인민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늘 마음쓰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안겨와서였다.

이렇듯 인민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에 의하여 시안의 긴장한 려객수송문제는 원만히 풀려나가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영 남 동 지 가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루사카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에드가르 룬구각하

나는 잠비아독립 5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경제적번영을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10월 16일 평 양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류경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이 발휘되는 멸적의 기상

오늘 세계인민들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본때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조성된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필승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앞에서 원쑤들은 더욱 전률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제재나 전쟁이란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떨며 굴어드는 그런 인민이 아니다.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기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어떤 침략의 불구름이 밀려와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우리 인민이다.

불세출의 명장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 인민의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은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력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인민도 영웅적인 인민으로 위용떨친다.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민족의 리익을 해치려는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것은 위대한 명장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우리 인민이 준엄한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에서 가장 포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적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안기며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강철의 명장이시며 제일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불패의 기상과 무비의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적들의 도발에는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으로 대답하는 인민, 원쑤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혁명의 불온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는 인민, 제국주의자들이 해무기를 휘두르고 제재의 올가미를 조여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함이 없이 련속적인 드센 강타를 안기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인민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우리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모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사상의 대결, 신념의 대결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원쑤들과는 오직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으로 맞서싸워야 한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투철한 반제계급적립장이다.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그 승리에 대한 신념이 억년 드놀지 않는 기둥으로 자리잡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적인 확신에서부터 우러나온것이다. 우리 인민은 당을 따라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오는 나날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만이 주체혁명의 백승의 진로라는것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자주적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반미대결전에 총집결하여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해나가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제자주의 성새, 사회주의의 보루인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정권교체》와 《제도전복》을 떠들다 못해 유엔무대에서 우리 국가와 전체 인민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천인공노할 궤변을 줴친 미제승냥이의 망발은 오히려 천만군민의 치솟는 증오와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활화산마냥 분출시키고있다.

덩치큰 나라들도 미국의 제재가 두려워 남작 엎드리지만 우리 인민의 자주적대, 혁명적신념앞에서는 그 어떤 침략책동과 제재봉쇄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병진의 키높이 국가핵무력을 강화해온 길이 천만번 옳고 이 길이야말로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것을 더욱더 확신하고있으며 정의의 핵보검으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은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하는 배짱과 기질로 련전련승의 기적만을 이룩해나가는 공격형의 투사들이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은 그 누구도 정복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겁을 먹고 뒤걸음치는 나라와 민족이 당할것은 자주권유린과 수치뿐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동반하여왔다. 미제가 비대한 힘을 믿고 어리석게도 우리를 놀래워보려 할 때마다 한다면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담력과 배짱으로 침략자들에게 죽음과 참패만을 안긴것이 우리 인민이다.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버리고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총포성없는 치렬한 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뻣뻣이 보여준 승리의 전통을 오늘도 우리 인민은 줄기차게 이어나가고있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고 세계의 면전에서, 온 세상을 향해 제 거품을 물고 반인륜적인 망발을 내뱉은 트럼프놈과 같은 승냥이 미제를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으려는 우리 인민의 결심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제와 끝까지 결판을 내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키어이 안아오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투철하다.

오늘 우리에게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우리 식의 최강의 타격수단들과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주체적인 전법이 있다.

바로 이 시각도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의 노래를 부르며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명장을 높이 모신 강용한 우리 인민의것이다.

윤 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로 들끓는 단천전역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불굴의 대오

조선인민군 김광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시대의 기수, 돌격대가 되여 당이 부르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단천전역으로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속에는 조선인민군 김광철소속부대의 전투원들도 있다.

다른 단위들보다 공사에 늦게 진입하고 조건도 불리하지만 이곳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굴진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지난 7월 부대력량이 룡서지구의 깊은 수림지대에 기동하여 처음으로 벌린 전투는 림시건물건설과 인입도로공사였다. 구분대들이 배치된 위치가 산세험한 수림지대여서 도로건설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숙소건설자재를 운반할수 없었고 갱건설도 내세운 목표대로 추진할수 없었던것이다.

부대지휘관들인 최원철, 홍승철동무들은 도로공사시작부터 전투원들의 정신력이 총폭발되도록 산발마다에 심장을 틀어놓고 구호와 직관물들을 게시하고 각 구분대들을 오가며 화선선동과 공사지휘를 박력있게 벌렸다.

불같은 공격정신으로 도로공사기일을 앞당기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서 우리 부대가 기치를 들자.

공사장마다에 이런 신념의 맹세가 차넘치는 속에 파감한 수림돌파전, 도로개척전이 벌어졌다. 잡판목이 무성하고 경사가 급하여 발을 붙이기도 어려웠으며 깊은 물짜기들이 적지 않아 절토와 성토공사량은 실로 방대하였다. 그러나 하루빨리 도로공사를 끝내고 정해진 작업갱구역에 설비들을 끌어올려 굴진전투를 시작하려는 이들의 비상한 자각과 불굴의 정신은 불가능을 몰랐다.

－조선인민군 신윤철소속부대에서－

전투가 시작된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부대의 장병들은 끝내 수km에 달하는 도로건설을 끝내고 기본공사에 진입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부대군인들의 불타는 공격정신은 작업갱공사가 시작되면서 더 높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송철은소속구분대 전투원들은 굴진전투의 앞장에서 내달릴 일념안고 남먼저 작업갱입구를 형성하고 공격속도를 높이였다. 린접한 작업갱굴진을 맡은 김영선소속구분대 군인들은 자체로 대차를 제작하고 발동식압축기를 막장에 따라 전진시키면서 굴진전투를 벌렸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여러개의 대피호까지 건설하면서 착암실적을 높이였다.

허창옥소속구분대 군인건설자들의 일손에도 불이 달렸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해발 1000여m의 산정점을 타고 앉아 최단시일에 갱입구를 형성하고 굴진실적을 올리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지질조건으로 갱을 새로 옮긴 김광헌소속구분대 전투원들이 진지를 차지하고 하루평균 1.5m, 최고 2m이상씩 전진하자 다른 구분대들에서도 공격속도가 비상히 높아졌다. 결과 모든 단위들에서 본격적인 갱굴진에 진입하여 한달 남짓한 기간에는 평균 120m, 최고 150m의 실적을 기록하는 혁혁한 위훈이 창조되였다.

자연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갱건설전투장은 그야말로 신념과 의지의 대결장이였다.

리성일소속구분대막장은 공사초기부터 《석수전장》으로 불리울만큼 물량이 많았다. 시간당 수십㎥의 물이 뿜어져나와 막장에는 잠간사이에 물이 차올라 양수기들도 맥을 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곳 전투원들은 모두가 육탄이 되여 허리치는 물속에서 착암작업을 하고 비력운반전투를 벌려 최악의 조건에서도 교대마다 굴진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김영일소속구분대 전투원들이 맡은 33－1갱에서도 혁신이 창조되였다. 급한 경사로 90m계선까지 전진해들어갔지만 모래구간이 얼어지지 않았다. 해당 부문 과학자들이 현장에 달려와 지질탐사를 진행한 결과 수십m앞까지도 암반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것이 확증되였다. 하지만 이곳 지휘관, 전투원들의 심장은 불가능을 몰랐다.

비상한 자각과 견인불발의 의지를 만장약하고 전투에 진입한 그들은 모래구간을 돌파하기 위해 밀집통발작업과 광차운반전을 벌리였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의지로 가슴끓이는 이런 불굴의 대오가 서있기에 부대가 맡은 공사구간에서는 짧은 기간에 높은 굴진실적이 기록되고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나갈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고있는것이다.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금강지도국려단에서

금강지도국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수km의 기본물길굴진실을 위한 3개의 작업갱굴진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작업갱들이 모두 30° 이상의 심한 경사각을 이루고 평균 600m이상 전진해야 하는 굴진작업은 결코 헐치 않다. 하지만 려단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사초기부터 불굴의 투쟁정신을 안고 돌격전을 돌이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려단이 현장에 도착하여 숙소건설을 다그치던 어느날 작업갱공사와 관련한 뜻밖의 정황에 맞다들었다.

숙소주변의 산기슭에 작업갱을 형성하는 경우 한개 작업갱에서는 2000여m, 또 다른 작업갱에서는 1000여m를 뚫어야 기본물길굴지점에 도달할수 있었다. 이것은 정해진 기일안에 도저히 작업갱굴진을 끝낼수 없는 아름찬 량이였다.

제기된 문제를 놓고 주인철려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진지한 협의끝에 대담하게 해발고가 높은 지대로 갱위치를 옮기고 작업갱길이를 단축할 방도를 탐구했다.

그러나 숙소에서 작업갱까지의 거리가 멀어져 막장진출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때 려단장의 머리에는 북부피해복구전투때 공사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려단이 맡은 공공건물건설에서 자랑떨친 나날이 우렷이 떠올랐다.

숙소를 이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기일만은 절대로 늦출수 없다.

려단장의 결심을 지휘관 남금일, 최상석동무들이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리하여 거의 마감단계에 이르렀던 숙소건설이 해발고가 높은 수림속에서 다시금 추진되여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결속되고 인입도로까지 개척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하지만 갱위치로부터 기본물길굴까지의 수직고만 하여도 수백m나 되는 작업갱공사는 결코 헐치 않았다.

경사급한 산중턱에 발붙이기조차 어려웠고 산기슭으로는 길은 물풀이 사품쳐흘러 방대한 량의 통나무로 방틀을 쌓고 설비운반을 위한 다리를 형성해야 하였다.

려단지휘관들은 대담하게 수십m를 수평굴진하고 막장안에 압축기장, 권양기장을 건설할 작전밑에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였다. 이것은 겨울철에도 설비들을 대기온도에 관계없이 만가동시킬수 있게 하면서도 최단기간에 비력을 리용하여 다리를 건설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였다.

지난 7월 중순부터 3개의 갱에서 동시에 입구잡기에 이어 굴진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50갱굴진을 맡은 자강도와 함경남도, 량강도대대가 앞장에서 내달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황해북도대대들에서도 공격속도를 비상히 높인 결과 전반적인 대대들에서 교대당 최고 2m의 굴진실적을 기록하는 놀라운 혁신이 창조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두달 남짓한 기간에 막장안의 설비장건설과 경사갱공사를 위한 수백m의 굴진실적도 이룩되였다.

대형화물자동차들이 통과할수 없던 긴 구간의 습한 도로를 단 하루동안에 일신시킨것, 보수가 불가능한 린접지역의 다리공사를 도맡아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놓은것 등은 발전소건설장으로 자신들을 불러준 당의 믿음에 보답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려단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소중한 열매들이다.

위훈창조에로 떠미는 《지원포화》

조선인민군 리익성소속부대에서

물길굴공사를 맡은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 리은철소속구분대 전투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맡은 작업갱공사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얼마전 구분대가 맡은 38－2갱을 찾았던 우리는 구분대가 이룩하는 공사성과의 요인을 말해주는듯 그윽히 갖추어진 각종 건설기계들을 볼수 있었다. 그중에는 전투원들로부터 《막장밥전소》를 방불케 한다는 능력이 큰 발동발전기도 있었다.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여도 굴진과 권양작업 등을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게 하는 설비였다.

우리는 구분대의 지휘관 송은석동무로부터 그 설비에 깃든 사연과 함께 갱건설을 적극 밀어주는 조선인민군 리익성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답게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대에서 높이 내세운 작업갱굴진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던 지난 8월 어느날 밤이였다.

물자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가 전조등을 밝게 비치며 구분대의 숙소가 있는 곳에 들어섰다.

차에서는 조선인민군 리익성소속부대 지휘관들이 내렸다.

동틀무렵에 부대를 출발하여 험한 령들을 넘고넘으며 천수백리의 머나먼 로정을 달려 풍서땅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들에는 피로가 짙게 어려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침실과 취사장, 세목장들을 일일이 돌아보고나서 막장으로 들어갔다.

구분대가 발전소건설장에 달려온 직후 긴요한 설비와 생활필수품들을 싣고 찾아와 전투원들을 고무하던 그때처럼 그들은 이날도 성능높은 수중뽐프와 각종 양수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싣고왔던것이다. 지휘관들은 전투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며 걸린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당시 구분대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물을 수백m나 떨어진 허천강에서 끌어오기 위한 공사작전을 세워놓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휘관들은 쉽게 걸음을 떼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멀리 떨어진 해산지구로 달려가 수백m의 용수관을 해결하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사실 부대에서는 발전소건설 초기부터 구분대가 맡아수행하는 공사를 부대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힘을 집중하였다.

부대지휘관들은 구분대의 공사실적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매일같이 료해하고 온 부대가 구분대의 공사실정을 잘 알고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보장하기 어려운 설비들은 자신들이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해결하여 공사장에 보내주었다.

어느날 부대지휘관들은 막장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분초를 다투며 벌어지는 전투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기 위해 새로운 설비보장작전을 펼치였다. 그것이 바로 어떤 정황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발동발전기를 해결하여 보장해주는 문제였다.

건설장에서 돌아온 지휘관들은 즉시적인 협의회끝에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력이 큰 발동발전기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결과 구분대는 굴진설비들을 만가동시키면서 공사실적을 부쩍 높이게 되였다.

단천전역을 조국수호의 전초선으로 여기고 공사를 함께 책임진 현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이런 지휘관들이 있기에 건설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량강도려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기본물길굴공사를 위한 작업갱굴진에서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니다.》

공사에 진입하기 전 려단이 맡은 기본물길굴공사를 위한 작업갱은 설계상으로 48갱에서 20° 경사로 700m, 49갱에서는 840m라는 방대한 량의 굴진작업을 진행하게 되여있었다.

굴진길이도 문제였지만 험한 산세로 하여 작업갱은 물동운반이 어려운 허천강을 낀 산기슭에 형성하게 되여있었다.

이로부터 려단에서는 갱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도를 찾게 되였다. 그 과정에 2개의 작업갱을 45° 경사로 정하자는 방안이 나오게 되였다. 그러면 갱길이는 각각 절반이상으로 줄일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였다.

갱건설에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한계점인 45° 경사각을 택하여 굴진을 진행한 전례가 없었던것이다.

신송철, 리권형, 김훈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굴진작업에 경험있는 도광업련합기업소 기술일군들과 여러 대대 지휘관들과의 진지한 협의끝에 대담하게 결심을 내리고 온 려단이 모인 자리에서 전투목표를 선포하였다.

오늘의 단천전역은 그대로 물길굴진장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모두 건설장에 달려올 때 다진 맹세를 지켜 갱건설에서 새 기적을 창조하자.

그후 발파작업때마다 압축기들을 끌어내고 다시 착암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전진시켰지만 여기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았다. 모두의 집체적협의끝에 압축기를 전부 끌내도록 하였다. 이런 성과는 수북, 화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이룩되고있다.

신천군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로전마다에서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한편 뒤떨어진 단위들에 선전선동력량을 집중하여 그 단위들에서도 벼가을을 끝내고 낟알털기실적을 부쩍 높이게 하고있다.

연안군당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군급기관 일군들이 직외강연강사들, 공로자강연강사들과 힘을 합쳐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경제선동을 참신하게 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군당책임일군은 오천협동농장을 담당하고 나가 본보기를 창조하고 군안의 협동농장일군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이동식벼종합탈곡기와 족탑기를 리용한 낟알털기실적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안악군당위원회, 재령군당위원회에서도 화선선동의 위력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도록 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진감시키는 도안의 당조직들의 위력한 사상공세로 하여 낟알털기를 앞당겨 끝낸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각오가 높으면 길이 열린다

량강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8월에 굴진속도가 떠지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전동키식으로 개조한 발동식압축기와 굴진작업장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기압력이 점점 낮아져 천공속도가 떠졌던것이다.

그때 오상철대대장과 조진위정치지도원, 김민섭참모장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끝에 압축기를 막장안에 더 깊이 전진시키는 동시에 이동식압축기를 보강하여 부족한 공기량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후 발파작업때마다 압축기들을 끌어내고 다시 착암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전진시켰지만 여기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았다. 모두의 집체적협의끝에 압축기바퀴를 개조하여 광차로선을 따라 전진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결과 종전보다 압축기철수와 막장전입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압축기가 광차와 어기는 시간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마천령굴공사때에도 려단적으로 방대한 공사를 도맡아해제낀 우리가 이름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소.》

《동무들, 우리 대대를 조국이 기억하는 단위로 되게 하자던 신념의 맹세를 잊지 말시다.》

대대장의 말에 뛰이온 조진위정치지도원의 호소는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언제인가 막장입구에 세운 지판판에 자신들이 일하는 현장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갱으로 되게 하자는 내용의 글발을 붙인 때부터 이 맡은 대대전투원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어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었다.

얼마후 갱에서는 굴진작업과 동시에 압축기대피호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 발파 더, 누구나 이런 비상한 열의에 넘쳐 날마다 실적을 높여가던 나날에 돌격대원들은 단야기지를 찾아갈 시간마저 아까와 무더여진 정대끝을 막장입구에서 말구어 함마로 두드려 떠린 다음 전투를 계속하였다.

결과 이들은 작은 능력의 압축기를 리용하면서도 천연암벽을 보란듯이 밀어제끼며 백수십m 길이까지 전진하는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우승의 비결－화선지휘

함경북도려단 김책시대대에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함흥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대대장의 말에 뛰이온 조진위정치지도원의 호소는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언제인가 막장입구에 세운 지판판에 자신들이 일하는 현장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갱으로 되게 하자는 내용의 글발을 붙인 때부터 이 맡은 대대전투원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어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었다.

얼마후 갱에서는 굴진작업과 동시에 압축기대피호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 발파 더, 누구나 이런 비상한 열의에 넘쳐 날마다 실적을 높여가던 나날에 돌격대원들은 단야기지를 찾아갈 시간마저 아까와 무더여진 정대끝을 막장입구에서 말구어 함마로 두드려 떠린 다음 전투를 계속하였다.

결과 이들은 작은 능력의 압축기를 리용하면서도 천연암벽을 보란듯이 밀어제끼며 백수십m 길이까지 전진하는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농사결속에로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공세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분발해나선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이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이 올해농사의 성과적결속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는 황해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함에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가을걷이 첫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하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펼치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영농전투가 벌어지는 일터들마다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분위기조성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한편 모든 력량과 수단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총동원, 총집중함에 대한 여러건의 강연자료들을 비롯한 정치사업자료들을 기동성있게 만들어 시, 군들에 내려보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특히 황남땅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내용과 혁명일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자료, 혁명가요, 전시가요, 새로 나온 노래들을 가지고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게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일동안에만도 도적으로 1만 2500여대의 포전방송기재들과 8100여대의 음향증폭설비들을 통해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혹음편집물을 내보내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가을걷이실적이 두배로 높아지게 하였다.

도당일군들은 직외강연강사, 공로자강연강사들과 함께 은률군과 신원군에 나가 강연선전활동을 맹렬히 벌리였으며 도예술선전대원들이 연백벌지구에서 예술선동활동을 일정적으로 벌리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는데 맞게 분계연선지대에 위치한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에서 더욱 기세좋게 내달리게 하면서 그 단위들의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온 도에 세차게 일도록 하고있다. 지난 12일과 18일 도당위원회는 군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도적으로 제일 앞장서나가고있는 배천군과 청단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을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보여주어 시, 군별, 협동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더한층 고조시키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댐으로써 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배천군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도적으로 벼가을을 제일먼저 끝낸 기세드높이 낟알털기를 빠른 시일내에 결속짓도록 하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기백있게 진행하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급기관 일군들이 정치사업자료를 가지고 포전에 나가 농장원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항일유격대식군중공작방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군이 지난해에 낟알털기전투에서 앞서게 된 비결을 알려주면서 군급기관 일군들이 진행하는 정치사업으로 하여 지금 군적으로 성능높은 280여대의 이동식벼종합탈곡기와 1300여대의 족탑기들이 만가동되면서 매일 낟알털기실적이 훨씬 높아지고있다.

논면적이 많은 추정협동농장에 달려나간 군당위원회 강연강사들은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리기 위한 내용의 강연선전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어 지난 10월 6일까지 낟알털기를 전부 끝내도록 하였다. 이런 성과는 수북, 화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이룩되고있다.

신천군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로전마다에서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한편 뒤떨어진 단위들에 선전선동력량을 집중하여 그 단위들에서도 벼가을을 끝내고 낟알털기실적을 부쩍 높이게 하고있다.

연안군당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군급기관 일군들이 직외강연강사들, 공로자강연강사들과 힘을 합쳐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경제선동을 참신하게 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군당책임일군은 오천협동농장을 담당하고 나가 본보기를 창조하고 군안의 협동농장일군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이동식벼종합탈곡기와 족탑기를 리용한 낟알털기실적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안악군당위원회, 재령군당위원회에서도 화선선동의 위력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도록 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진감시키는 도안의 당조직들의 위력한 사상공세로 하여 낟알털기를 앞당겨 끝낸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계속혁신의 한길로

장선탄광의 일군들

어기에 장선탄광자료가 있다. 지난 5년간 해마다 년간 석탄생산계획 150%이상 수행. 지난해 탄광이 생긴이래 최고생산실적 기록. 이 기간에 2중26호모범기대공장, 모범체육공장의 영예를 지님. …

이러한 성과는 자기 단위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높은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탄광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몇해전 장선탄광에서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을 때였다.

탄부들 누구나 당앞에 결의한대로 150%이상의 높은 실적을 낸것으로 하여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하지만 김길영지배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 기록을 또다시 돌파할 작전을 세우고있었다.

(급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줄달음치라는것은 당의 뜻이 아닌가.)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탄광에서는 그 다음해의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몇달이나 앞당겨 결속하게 되였다.

어느날 막장에 들어서던 지배인은 작업의 원칙에 일부 탄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이제는 계획도 넘쳐 수행하였는데 허리띠를 좀 늦추어도 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날 생산총화에서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본분을 수행한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높이 세운 증산목표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달성했을 때 탄광이 제구실을 다한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내달리자.

이렇게 되여 탄광에서는 증산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전해보다 높아진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150%이상 수행하게 되였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게 되였다.

석탄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데 맞게 일군들은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근거있게 내민 일군들의 피타는 사색과 노력은 풍만한 결실을 가져왔다. 오늘 탄광의 후방기지에는 돼지와 닭, 게사니우리, 메기양어장, 미꾸라지서식장 등이 그윽하게 꾸려져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탄부들의 웃음넘치는 풍성한 식탁으로, 석탄증산으로 이어지고있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이런 투철한 림장을 가지고 석탄생산은 물론 탄부들의 후방공급사업에서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며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해가는 이곳 탄광일군들의 일본새는 긍정할만 하다.

특파기자 오철훈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대학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 결속단계

평 양 시 에 서

평양시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평양교원대학을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연건축면적이 2만 수천㎡에 달하는 평양교원대학이 불과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어제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일신되여가고있다.

이 자랑스러운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관철이라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 결사의 각오로 총망된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나날에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2월초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양교원대학을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다.

시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시당과 시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로 강력한 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시와 구역의 많은 로력과 통전기재들이 동원되였다.

작업과제는 방대하였다. 도서관과 보조교사, 체육관 등을 건설하고 기본교사와 기숙사를 비롯하여 여러 대상을 개건하며 지대정리, 원림록화사업까지 해야 하는 아름찬 과제였다.

하지만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관철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온 건설장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50일만에 1단계목표에 반영된 8개의 건설대상들과 3개의 개건보수대상들에 대한 수만㎥의 기초굴착공사와 1만 수천㎡의 기초 및 기본골조공사가 끝나고 근 9만㎡의 미장과 만장 및 지붕공사, 옥내시설공사를 비롯한 기본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만경대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연건평이 수천㎡에 달하는 도서관건설을 맡아 건설시작부터 본때를 보이였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긴장한 철야전투를 벌려 이미 있던 건물을 허물고 기초공사를 단 며칠동안에 해제끼였으며 태양절전까지 기본골조공사를 와닥닥 해제끼고 5월초까지는 내외부미장을 전부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모란봉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건설기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기본골조공사를 제일먼저 끝내고 미장공사도 단숨에 해제끼였다.

체육관과 1호보조교사건설을 맡은 청춘구역과 대동강구역, 형제산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맡겨진 대상건설을 제기일에 끝내였다.

보통강구역과 동대원구역, 룡성구역, 력포구역, 사동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답게 작업과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1단계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는데 맞게 새로운 전투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맡은 과제를 제때에 끝내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았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대정리와 원림록화조성에서도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룡라도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건설에 필요한 많은 타일과 위생자기들을 전량 보장하는것과 함께 교육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 그리고 많은 가구와 비품들을 보장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시무역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은 건설장에 나와 설계가들과의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각종 창문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담배련합기업소에서도 17종에 32점의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보장하였다.

시송배전부일군들은 변압기와 각종 배전반들을 제때에 보장하고 수십명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일안에 외부전력망공사를 불이번쩍 나게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326전선공장, 시청년동맹위원회, 평양식료련합기업소, 평양카금생산국, 시피복공업관리국, 시원림관리국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서도 평양교원대학개건공사를 적극 도와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관철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서도 기어이 뚫고 헤치며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는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제꿋한 마음에 떠받들려 평양교원대학은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있다.

특파기자 최 수 복

비상한 탐구정신을 지니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치과의학부 치과보존연구실의 연구사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증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과학기술의 보검으로 단호히 쳐갈 결의를 안고 이곳 연구사들은 치과학분야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림키호실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이삭기증치료에서 효과가 좋은 겉형태의 불화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이삭기예방재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겉형태의 불화물은 액상재료보다 림상적용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환자들이 자체로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 효과성이 인정되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겉형태의 불화물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기 위한 고심어린 연구끝에 이삭기증예방과 초기이삭기증치료에서 효과가 매우 높은 《불화나트리움-불산겔》을 연구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불화물은 세계적으로 광범히 리용되고있는 불화물겔의 부족점을 해결하면서도 치료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는 이삭기예방재료이다.

연구실에서는 또한 이삭기증과 치주염을 예방하고 입냄새를 억제할수 있는 알약을 연구개발하여 보건실천에 적극 리용하고 있다.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이 알약은 인체의 필수미량원소인 불소를 함유하고있어 이발과 치조골을 튼튼하게 하고 이삭기증과 치주염을 예방치료할수 있을뿐아니라 관절염과 걷기장애, 히리아픔 등에도 치료효과가 있다고 한다.

자기의 두뇌와 지혜로 우리의 치과학분야를 기어이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 만만한 야심과 배짱을 가지고 이곳 연구사들은 여러가지 치료방법들과 의료기구들을 적극 창안제작하여 보건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하여 전기적근관길이측정기의 제작과 림상적용에 대한 연구와 이삭기증의 비외상성수복치료에 대한 림상적연구 등 가치있는 의료기구들과 치료방법들이 연구완성되여 환자치료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곳 연구사들은 과학연구사업을 벌려나가는 속에서도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도 성의껏 진행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오늘도 이들은 나라의 치과학분야를 떠메고나가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의학과학연구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민

더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미곡땅의 새 풍경에 비낀 애국의 마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지키고 더 크게 울리도록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이고 제자들인 우리 일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의 정든 농장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찾고 또 찾으시였던 미곡땅에 최근 아름다운 새 풍경이 또다시 펼쳐졌다.

유치원과 탁아소가 훌륭하게 개건확장된데 이어 학교수영장까지 멋들어지게 새로 꾸려진것이다.

주체101(2012)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송윤희관리위원장은 력사적인 순간을 체험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던것이다.

그날 송윤희관리위원장은 미곡땅에 당의 후대사랑을 더 활짝 꽃피워갈 불타는 맹세로 가슴을 끓이였다.

농장에 돌아와 미곡땅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것인가 하고 사색하던 그는 어느날 면길을 떠났다.

경상유치원을 비롯하여 소문난 유치원, 탁아소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런 높은 수준에서 농장의 유치원, 탁아소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가다듬었다.

그런데 그가 유치원, 탁아소 건설문제를 상정시켰을 때 일부 사람들이 농장에서 벌려놓은 일도 많은데 바쁜 건설대상들부터 먼저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채택을 손들어 찬성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나는 초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교육사업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서자. …

그의 절절한 이야기는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후 형성안이 완성되자 송윤희관리위원장은 자재확보사업에로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며 그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면길을 오가면서 수많은 세멘트와 철근, 모래를 마련하였다.

곧 건설전투가 벌어졌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매일 건설현장에 나와 지휘도 하고 후방사업도 통이 크게 해주면서 건설에 동원된 농장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 나날 이곳 일군들은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농장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깊이 마음썼다.

뭐니뭐니 해도 아이들의 방은 뜨뜻해야 한다며 무동력보이라에 의한 난방보장대책도 세워주고 유희실과 운동실에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노는것을 들여다볼수 있게 통유리로 시원하게 창문들을 내도록 하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해빛이 잘 들게 유리로 벽치리를 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된 천정무리등과 천정등을 곳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책걸상과 침대 등도 자체로 멋있게 만들어 방마다 놓아주고 새 창문들과 출입문들도 달아주었다.

그리고 농장일군들은 사색과 토론을 거듭하면서 벽마다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끄는 재미있는 그림들과 직관물들로 꽉 채워주었다.

평양에 출장을 갔다가도 농장아이들생각이 나 수많은 놀이감들을 마련해가지고온 송윤희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에 받들려 유치원과 탁아소건설은 얼마전에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개건확장된 유치원과 탁아소를 돌아본 학부형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훌륭한 곳에서 공부도 하고 무럭무럭 자라게 된것이 정말 꿈만 같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였다.

농장에서는 이렇게 유치원과 탁아소를 번듯하게 일떠세우는 긴장한 속에서도 학교에 멋들어진 수영장을 새로 꾸려주는 사업도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미곡땅에는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새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 도시부럽지않게 즐겁게 웃으며 희망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가고있는 미곡땅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 그뒤에는 이렇듯 교육사업의 참된 주인이 되여 고향땅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애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전 국 나 노 기 술 부 문

과학기술전시회-2017 개막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7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개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나노기술국,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농업연구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이 참가하는 전시회에는 나노기술부문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연구완성된 19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는 나노리론 및 측정, 나노재료, 나노농업 및 의학분과로 나뉘여 진행되며 이 기간에 나노기술발전략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습이 있게 된다.

개막식이 23일 국가나노기술국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계최남동지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나노기술협회 위원장 김응철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나노산업을 창설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나노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전력공업과 농업,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나노기술성과들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연구 및 도입성과들을 널리 보급일반화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다.

전시회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선진영농방법도입에 발벗고나설 때

대동군 상서협동농장 제8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대동군 상서협동농장 제8작업반을 찾았다.

해마다 알곡생산에서 굳직으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이 작업반에서 올해에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비결은 당의 뜻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데 있었다.

지난 기간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높여온 작업반에서는 올해에도 새로운 논벼삼각재배방법과 강냉이무지재배방법을 선참으로 받아들이였다.

중산의 중요한 예비가 바로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이곳 초급일군들은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논벼삼각재배방법과 강냉이무지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제기있게 밀고나갔다. 농장일군들도 이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새로운 재배방법과 관련한 다매체편집물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종전의 재배형식에 비하여 통풍과 빛조건을 개선하며 비료와 토지의 리용률도 높일수 있는 등 새로운 재배방법들의 과학성과 현실적효과성을 누구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기술학습, 벼운남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의 꾸준한 노력은 농장원들스스로가 그 도입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앞선 영농방법이 응당한 효과를 나타내자고 하여도 땅을 기름지게 하여야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고 하여도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한다고 작업반의 한 초급일군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닭공장들에서 나오는 닭배설물과 도시거름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찾아 리용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많은 거름을 논밭에 넣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곳 초급일군들은 농장원 정선애, 신경순, 염정복 동무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농장원들이 당면한 영농공정마다에서 주인다운 자각으로 새로운 재배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새 재배방법에 맞게 벼씨뿌리는기계도 창안제작하는 등 기술혁신을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이렇게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높인 결과 가을이 심한 올해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속에서도 작업반에서는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었다.

성과는 이들처럼 새 기술과 선진영농방법들을 제때에 받아들이고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갈 때 어디에서나 다수확의 자랑찬 결실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강 철 웅

강남군 읍 130인민반 리영화동무

아름다운 삶의 자욱

누가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강남땅의 정렬한 녀인도 있다. 그가 바로 강남군 읍 130인민반에서 사는 리영화동무이다.

우리 당의 원대한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리영화동무는 지난 기간 희천발전소건설장과 력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앞장섰으며 오늘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리영화동무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에 접하게 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대규모의 희천발전소건설을 구상하시고 신세계한 발전소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오면서 그는 자신의 공민적의무를 자각하게 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자면 전당적, 전국가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자.)

리영화동무는 희천발전소건설장지원을 잘하기 위해 집짐승기르기를 이악하게 밀고나갔다.

한마리의 새끼돼지라도 더 구해오기 위해 애를 썼고 나날이 커가는 돼지들의 먹이를 보장하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것이 누가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강남땅의 정렬한 녀인도 있다. 그가 바로 강남군 읍 130인민반에서 사는 리영화동무이다.

우리 당의 원대한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리영화동무는 지난 기간 희천발전소건설장과 력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앞장섰으며 오늘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리영화동무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에 접하게 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대규모의 희천발전소건설을 구상하시고 신세계한 발전소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오면서 그는 자신의 공민적의무를 자각하게 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자면 전당적, 전국가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자.)

리영화동무는 희천발전소건설장지원을 잘하기 위해 집짐승기르기를 이악하게 밀고나갔다.

한마리의 새끼돼지라도 더 구해오기 위해 애를 썼고 나날이 커가는 돼지들의 먹이를 보장하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것이 현장들과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서 도서해설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출판물보급원들이 진행하는 도서해설선전활동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광 복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한

연 구 토 론 회 진 행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한 연구토론회가 2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민족유산보호, 과학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근로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김명, 박룡운 평양미술종합대학 학부장, 강금성 고려의학연구원 내과연구소 소장, 최기정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실장, 조영 조선로리협회 중앙위원회 실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새로 발굴되여 귀중한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 계승발전되였으며 인민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참가자들이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태가 반영되여있는 민족전통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창조물들, 미풍량속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음악과 무용, 미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의 노래, 우리의 춤을 추고 그림을 하나 그리고 공예품을 하나 만들어도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조선화와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예품을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감정정서, 력사와 전통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구전유산들을 찾아내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선조들이 창조한 고려의학, 식생활문화 등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체 참가자들이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빛내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올해에 새로 등록된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들에 증서가 수여되였다.

문 화 회 관 의 면 모 를 일 신

개 성 시 에 서

개성시에서 문화회관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일떠세울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의 일군들은 문화회관을 개건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밑에 공사를 최단기간에 집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들은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회관내부설계를 독특하게 완성하였으며 설비, 자재보장을 따라세우고 시공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해나갔다.

공사의 선행공정을 맡아나선 개성시무역관리국, 개성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려 건설자재와 설비, 물동수송을 앞세워 보장함으로써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개성시주택보수사업소 로동계급은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내부벽체미장과 천정장식, 3 200여㎡에 달하는 지붕씌우기 등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갔다.

시예술선전대와 문화회관종업원들은 무대바닥과 전막, 간막들을 새롭게 개조하고 조명장치와 불장식, 음향설비들도 현대화함으로써 문화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갖출수 있게 하였다.

시안의 근로자들도 회관개건사업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의껏 지원하여 완공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3층으로 된 문화회관에는 수백석의 관람석과 성악, 기악소조실 등이 손색이 없게 꾸려져있다.

문화회관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토산군출판물보급소에서 현실의

출판물보급사업을 짜고들어

경험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와 혁명일화총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등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담은 도서들에 대한 해설선전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실제적지혜를 합치고있다. 이와 함께 리출판물보급원들의 역할을 높여 영농전투에로 도서해설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출판물보급원들이 진행하는 도서해설선전활동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광 복

독자의 편지

그 진정 뜨겁습니다

혁명의 군복을 입었던 제가 제대된지도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 영예군인인 저를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준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전심부원과 김은옥직맹초급단체위원장을 비롯한 체오기술합작회사 업무과 성원들도 있습니다.

언제인가 저를 찾아온 전심부원은 친누나처럼 생각하고 제기되는것이 있으면 아무때나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전화련계를 가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자주 성의껏 마련한 기념품들을 안겨주면서 저를 늘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에도 업무과 성원들은 자기들의 성의가 깃든 첫날옷과 텔레비존을 비롯한 가정용품들을 안겨주면서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급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에는 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보약재를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진정을 다하였습니다.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뜨거운 진정에 떠받들려 저의 생은 더욱 활력에 넘쳐 흘러가고있습니다.

중구역 오탄동 32인민반 최 광 혁

로씨야에 갔던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안동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로씨야의 싼크뜨-페떼르부르그에서 진행된 국제의회동맹 제137차총회에 참가하고 23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3차 확대회의 참가자들이 떠나갔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3차확대회의에 참가하였던 리사회 리사 김옥화와 백포르 베뜨로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백두산위인홈모 로씨야위원회 대표단이 23일 렬차와 비행기로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기여가자

대를 이어 강철전선을 지켜가는 애국자가정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종합직장 직장장 진영일동무의 가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대는 바뀌여도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력사는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3월말 어느날 어둠이 깃들도록 강선땅의 사연깊은 백양나무아래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종합직장 직장장 진영일동무와 그의 아들 진대성동무였다.

며칠후 진대성동무는 공부하러 떠난다. 공부를 마치면 돌아올 아들이긴만 진영일동무는 굳이 그를 데리고 백양나무 설레이는 이곳을 찾은것이였다.

《어디 가서든지 이 백양나무의 설레임소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오는 강선의 당부임을 항상 명심해라.》

세대를 이어오는 강선의 당부, 진영일동무가 젊었던 시절대학으로 떠날 때에도 아버지는 이 백양나무아래에서 이 말을 외웠다.

그의 아버지는 온 나라가 아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 진응원로력영웅이다.

아버지의 당부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진영일동무는 부풀어오르는 마음을 안고 강선땅으로 달려왔다.

그 시각 아버지는 림종을 앞두고있었다.

진응원영웅은 천대과학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아들을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며 이 아버지는 이날이때까지 오직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강철로 받들어왔다고, 너희들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대를 이어 강철로 억세게 받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했다.

진영일동무는 쇠장대를 틀어쥐고 아버지가 지켜섰던 3호전기로에서 온몸을 땀으로 화락하니 적시며 전기로의 특성과 강철생산묘리를 더듬하였다. 종전보다 로보수기일을 훨씬 앞당기고 쇠물을 폭포처럼 쏟아냈다.

때로는 뜨거운 화염도 아랑곳없이 전국승강장치를 바로잡기도 하였으며 대형변압기가 고장났을 때에는 수리공들과 함께 그 수리를 다그쳐 숨죽였던 전기로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다.

일본새도 생각하는품도 어찌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진응원영웅과 똑같은가고 누구나 찬탄을 금치 못했지만 진영일동무는 만족을 몰랐다.

용해공시절에는 물론 아버지처럼 3호전기로 로장이 되여서도, 강철직장 직장장으로 일할 때에도 진영일동무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쇠물을 뽑아내겠는가를 사색하며 모든것을 다 바쳤다.

언제인가 쇠물남비보장속도가 늦어져 강철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 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쇠물남비준비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용해공들의 일장에서 긴장한 보수전투를 벌렸으며 출강구교체작업이 제기되였을 때에는 천리마시대 용해공들처럼 불굴의 정신력으로 종전보다 그 시간을 비할바 없이 단축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새로운 전식다침법을 성공시켜 종전에 비해 로바닥수명을 2배 이상으로 늘이고 강철 1톤 마그네샤크링카소비량을 훨씬 줄이였다.

그 나날 진영일동무는 걸려있는 직장장으로 소문을 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았다. 5년전 2월에는 새로 제정된 김정일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녔다.

잊을수 없는 그날 사연깊은 백양나무를 또다시 찾은 진영일동무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당원으로, 직장장으로, 로력영웅으로, 첫 김일성훈장수훈자들중의 한사람으로 삶을 빛내여온 아버지처럼 진영일 그자신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용해공시절을 거쳐 직장장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영광넘치게도 첫 김정일훈장수훈자들의 대오에 들어선것이였다.

생각할수록 분에 넘쳐 진영일동무는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이런 복받은 삶과 값높은 영예를 받아안은것이였다.

강철종합직장 직장장으로 사업하면서부터 진영일동무는 더욱 창성한 투지와 불같은 열정에 넘쳐 강철증산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쳤다.

물동량공업이라고 부풀만큼 방대한 원료, 부원료수송을 전제로 하는 강철생산을 위해 여러 직장들을 매일과 같이 메주밟듯 했다.

그러다가도 강철직장에 이르러 전기로들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주홍빛쇠물을 바라볼 때면 아버지가 그리했던 것처럼 땀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미소가 어리군 했다.

일본새도 그때 지어 쇠물을 보며 짓는 미소까지도 아버지와 그리도 똑같은가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글거리는 저 쇠물은 강선의 생명과도 같은거요.》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이라고 아버지가 늘 이르군 하는 그 말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는 진대성동무의 가슴은 마냥 설레였다.

당과 조국을 받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쇠물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왔으며 그 길에서 모든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았다. 이제는 자기들, 강선의 새 세대들차례였다.

아버지의 두손을 꼭 잡고 철의 기지를 떠메고나가는 주인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것을 다짐하는 진대성동무의 뇌리에서는 백양나무의 설레임소리가 떠날줄 몰랐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울리는 그 소리는 붉은 쇠물은 우리 가정 아니 강선의 명줄이라고 거듭 외우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이렇듯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을 세워가고있는 애국자가정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다.

이것은 내 나라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김 치 곤

못 잊을 사연을 전하는 버섯향기

장강버섯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이 하나로 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 뉴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장강버섯공장은 군소재지를 감돌아흐르는 북천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아담하고 규모있게 꾸려진 공장의 전경은 첫눈에 벌써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걸봉안이라고 버섯재배장들에서는 느타리버섯을 비롯한 갖가지 버섯들이 키돋움을 하고있었다. 버섯향기 넘쳐나는 온실버섯재배장에서 선뜻 발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배인 전금실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아홉해전 대소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주신 일터입니다. 지금도 영광의 그날을 잊을수 없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해만 지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그들이 키워가는 송이송이 버섯마다에 뜨겁게 어려있었다.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장 지배인을 하는 전금실동무의 가슴속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애국자가정의 한 성원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행복이 자리잡고있었다.

9년전 영광의 그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공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공장의 지배인이였던 김용정동무의 가정에서 아들딸, 사위, 며느리를 비롯한 9명의 식솔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당당히 한몫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훌륭한 애국자가정이라는 최상최대의 영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애국자가정!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전금실동무의 심장은 그 사랑, 그 믿음에 높은 버섯생산성과로 보답할 충정의 열의로 불타고있었다. 전금실동무만이 아닌 이곳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버섯을 팡팡 생산하여 영광의 일터를 빛내여갈 애국의 숨결로 세차게 높뛰고있었다.

지난 기간 해마다 수십t의 버섯을 생산하여 군인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고 그 나날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공장에서는 최근년간에만도 한해에 30t의 버섯을 생산할수 있는 지하버섯재배장과 한번에 한의 기질을 멸균할수 있는 회전기질발효랑크를 꾸려놓음으로써 공장의 버섯생산능력을 2배이상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공장이 이룩한 성과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이곳 종업원들의 고결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로교가 깃든 장강땅에 버섯바다 펼치여놓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자!

종업원들모두가 버섯종균과 기질생산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으며 버섯생산을 늘입수 있는 일이라면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았다. 버섯재배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과학기술학습을 하였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였다.

당정책관철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적극 떠밀어주었다. 늘 공장의 형편을 알아보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풀어도 주면서 주저앉세라 쓰러질세라 사랑을 주고 힘을 주는 일군들의 모습은 이들에게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각을 백배해주었다.

우리와 만난 정영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군인민들의 식탁에서 사철 버섯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겠습니다.》

김 국 철

작아도 큰일을 하는 공장

맹산군종이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맹산군종이공장은 종업원이 불과 수십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방공업공장이다.

하지만 맹산군주민들은 한결같이 이 공장을 두고 작아도 큰일을 하는 공장이라고 말한다. 먼곳에서 온 친척이나 손님들에게 《우리 군에서 만든 학습장이라오.》 하며 이 공장 제품을 자랑하는 군인민들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곳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기간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생산공정들을 개건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하였다. 쉬운 일이 아니였다. 설비, 자재, 기술 등 길린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보다는 우리같은 산골내기들이 어떻게 도시사람들이 하는것을 다 따라하겠는가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였다.

《우리라고 왜 도시사람들을 못 따라가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가 깃든 황금산을 옆에 끼고 사는 우리들이 생산공정만 개건하면 걸릴게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학습장을 안겨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명혁지배인의 이야기는 종업원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공장에서는 돌격대를 조직하려고 했지만 엄마 안되는 인원을 놓고 돌격대는 또 뭔가고 하며 모두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런 불같은 열정을 안고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한해를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왔다.

생산건물도 일신하고 설비들도 새롭게 갱신하느라 누구나 뛰여다니던 나날 집단에 꽃펴난 이야기는 또 얼마나 아름다왔던가.

낮과 밤을 이으며 벌어진 전투의 나날 설비개조와 건설자재구입으로 누구보다 바쁜 속에서도 종업원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비낄세라 혈육의 정을 기울인 일군들이며 힘든 전투속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동지애를 발휘하여 종업원들의 누이로 불리운 녀성종업원들…

지난해 그렇게 불같은 헌신으로 많은 일을 한 이들이지만 만족을 몰랐다.

지난 4월 보이라대보수전투때였다.

교체해야 할 증기관만 하여도 근 1 000m, 보수하기보다 새 보이라를 만들어 설치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는 전투였다. 수십년전에 설치한 보이라여서 그 내속을 파악하고있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할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앞세운 사람은 없었다. 종업원들은 또다시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섰다.

남의 힘을 바라면 언제 가도 흥할수 없다.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이런 결심을 품고 떨쳐나선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보이라대보수를 열흘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의 부분품을 자체로 생산도입하여 그 수명을 배로 늘이고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는 등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고 지난 8월에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종이들과 학습장들은 군안의 주민들속에 생활필수품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제품이라고 기뻐하며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작아도 큰일을 하는 공장이라고.

본사기자 신 현 규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기 위하여 애국의 마음을 바쳐간다! —중앙양묘장에서— 국토환경보호성 본사기자 적음

우리는 회령의 녀인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속에서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미풍이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있습니다.》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헌신의 땀방울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회령땅의 녀인들도 있다.

회령시에 녀맹돌격대가 조직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0돐이 되는 해였다. 그때부터 뜻깊은 회령땅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꽃피우기 위한 시안의 건설장마다에는 언제나 녀맹돌격대의 기발이 펄펄 휘날리군 하였다.

하다면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지향은 무엇이였던가.

회령시녀맹돌격대원들이 살림집건설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던 지난 8월 어느날이였다.

혼합물을 담고 기운차게 오르내리던 작업승강기가 뜻밖의 고장으로 멎어서게 되였다. 삽시에 건설장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녀인들이 서로 안타까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서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건설장에 울려퍼졌다.

《동무들, 이름한 난관에 주저앉는다면 우리 어찌 회령의 녀인들이라 하겠어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계신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하며 한손을 높이 들어 오산력의 하늘가를 가리키는 사람은 돌격대장 장성희동무였다.

돌격대원들모두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김영애동무가 선참으로 혼합물이 담긴 소랭이를 들고 발판우에 올라섰다. 그의 모습을 보는 녀맹원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김영애동무가 불편한 몸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최희순, 김봉숙, 전순실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하나둘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회령의 녀인들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누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며 그날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한 가정의 안해로서, 주부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도 작은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유서깊은 회령땅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넋원이 활짝 꽃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갈 각오를 안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투쟁해나갔다.

우리는 회령의 녀인들이다!

이 무릎은 회령고향집을 비롯한 혁명사적지관리사업으로 하루일을 시작하고있는 안영실, 채영숙, 김명희, 김선희동무들이며 남보다 두곱, 세곱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건설장을 주름잡는 김영희, 윤광숙동무를 비롯한 녀맹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앞으로도 회령의 녀인이라는 부름을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시녀맹일군인 리성옥동무의 짧은 이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남긴 여운은 자못 깊다.

회령의 녀인들답게 살려는 이 승고한 자각이야말로 그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원천이 아니랴.

녀맹돌격대에 그들이 걸어온 자욱자욱을 추억케 하는 전투기록장은 따로 없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온 발자욱은 회령시의 곳곳에 력력히 남아있다.

평양의 옥류관을 그대로 떠옮긴듯 멋쟁이건물로 일떠선 회령관이며 음식점거리, 회령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은 그대로 녀맹원들의 헌신이 깃든 창조물이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전해주는 전투기록장이기도 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회령녀인들인가.

이룩해놓은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이렇듯 성실하고 근면하고 강인한 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다 더 훌륭하게 번모될 회령시의 래일을 그려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신 철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 빛나는 수호자의 별

각지 인민보안기관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만이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참다운 충신으로 될수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들의 제일 가까이에서 빛나고있다.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전초선에서 수호자의 사명과 본분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복무의 순간순간을 이어가고있는 인민보안원들의 모표와 전장리던 교원, 학부형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연영철동무와 그의 안해 최정녀동무가 나이찬 딸의 장래를 위해 마련해두었던 자금으로 분교에서 리용할 콤퓨터와 텔레비죤수상기 등 수많은 교육설비와 교구비품들을 마련했다는것을.

개교식을 앞두고 안해와 함께 학용품들을 한가득 안고 찾아온 연영철동무의 손을 잡고 응당 자기들이 했어야 할 일인데 수고를 끼쳐 미안하다고 거듭 외우는 교원, 학부형들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후대사랑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는 우리모두가 학부형입니다.》

연영철동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여 우리 당의 승고한 후대사랑을 실천으로 정히 받들어가는 인민보안원들속에는 평양시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대장 김일호, 정치부장 리순학동무를 비롯한 교통지휘대 대원들과 라선시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대장 주정민, 만포시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 홍태일, 정원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의 진광남, 청암구역인민보안부 아래단위의 리금철동무도 있다.

이 땅의 교정마다에 메아리치는 배움의 종소리,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와 노래소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떠올린 로동당만세소리로 가슴벅차게 새겨안으며 우리의 인민보안원들이 바치는 뜨거운 진정과 헌신속에 조국의 미래는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있다.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뜨거운 진정

지난해 3월이였다. 새 학년도를 앞두고 읍에서 수십리 떨어진 회창군 태인고급중학교 도리령분교의 개교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현지에 나갔던 군인민보안부 부부장 연영철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벽제가 어려운데 허갈라지고 침침하게 안겨오는 분교건물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이 아닌가. 분교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 환하고 번듯하게…)

연영철동무는 긴장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속에서도 매일과 같이 발길을 탈리며 분교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했고 전문건설기관의 유능한 기능공들을 만나 분교건설과 관련된 토의도 진행하였다. 그의 모습에 감동된 부서의 인민보안원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어느날 밤늦게 분교건설장에서 돌아오던 연영철동무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래전부터 앓고있던 신경통이 도졌던것이다. 뒤따라 내려오던 인민보안원들이 달려왔다. 너무 무리한것 같다고,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는가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연영철동무는 웃으며 말했다.

《설사 쓰러진다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드는 초석으로 굳어진다면 난 더 바랄게 없소.》

연영철동무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불같은 일념이 맥박치고있었다.

연영철동무는 분교의 출입문과 창문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외부도색은 어떤 색갈로 하며 바닥미장은 어떻게 하겠는지를 사색하고 또 사색하면서 분교를 어느 하나도 흠잡을데없이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운동장도 더 넓히고 어려가지 운동기재들도 세워주었으며 분교로 통하는 도로도 아이들이 활개치며 들어설수 있게 시원히 닦아놓았다.

새로 일떠선 분교가 정말 멋있다고 너무 좋아 떡박질하는 아이들과 연해연방 찬탄을 터뜨리던 교원, 학부형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연영철동무와 그의 안해 최정녀동무가 나이찬 딸의 장래를 위해 마련해두었던 자금으로 분교에서 리용할 콤퓨터와 텔레비죤수상기 등 수많은 교육설비와 교구비품들을 마련했다는것을.

개교식을 앞두고 안해와 함께 학용품들을 한가득 안고 찾아온 연영철동무의 손을 잡고 응당 자기들이 했어야 할 일인데 수고를 끼쳐 미안하다고 거듭 외우는 교원, 학부형들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후대사랑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는 우리모두가 학부형입니다.》

연영철동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여 우리 당의 승고한 후대사랑을 실천으로 정히 받들어가는 인민보안원들속에는 평양시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대장 김일호, 정치부장 리순학동무를 비롯한 교통지휘대 대원들과 라선시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대장 주정민, 만포시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 홍태일, 정원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의 진광남, 청암구역인민보안부 아래단위의 리금철동무도 있다.

이 땅의 교정마다에 메아리치는 배움의 종소리,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와 노래소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떠올린 로동당만세소리로 가슴벅차게 새겨안으며 우리의 인민보안원들이 바치는 뜨거운 진정과 헌신속에 조국의 미래는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있다.

뜻과 정을 나누는 참다운 동지가 되여

지금으로부터 5년전 담당한 도로상태를 살펴보던 구장군인민보안부 교통보안원 김덕일동무는 불편한 몸으로 걸어가는 한 영예군인을 발견하게 되였다. 급히 그곳으로 달려간 김덕일동무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으며 영예군인을 부축해주었다.

《영예군인들이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전우들과 의논해보려고 떠난 길음입니다.》

그날 송영수동무와 함께 영예군인들을 만나본 김덕일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영예군인들이 병사시절처럼 당과 조국을 위해 정보로 검토록 힘껏 도와주고싶었다. 그때부터 김덕일동무는 영예군인들의 집을 자주 찾아가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성의껏 도와주는 한편 손풍금과 기타, 하모니카 등 영예군인들이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악기들도 마련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송영수동무를 비롯한 10명의 영예군인들은 군안의 농장들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장들을 찾아다니며 수백차의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려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영예군인들은 흥분된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모두가 산림복구전투에 참가하자고 결의해나섰다. 그것을 알게 된 김덕일동무는 조용히 먼길을 떠났다. 그가 많은 나무모를 구해왔을 때 영예군인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얼마후 구장군의 주변산에는 영예군인들이 나무를 심고 정성껏 관리하는 구역이 생겨났다.

김덕일동무의 불보다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진정이 그대로 힘과 열정이 되여 조국을 위한 보람찬 길을 곧바로 달려온 영예군인들은 더 많은 집짐승을 길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보내줄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의 목표가 하루빨리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김덕일동무는 집짐승우리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고있다.

수십년간 영예군인의 친근한 동지가 되여 사심없는 진정을 고여온 리원군인민보안부 일군 김승국동무와 우시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 김용정동무, 지난 시기 인생을 잘못 살아온것으로 하여 모대기던 사람들과 자식들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피고 이끌어주어 사회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내세운 정천구역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 림철호동무와 중구역인민보안부 아래단위의 리철수동무의 소행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가는 당의 미더운 정치보위자들이 있어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성벽은 더욱 철옹성같이 다져지는것이다.

량심과 의리로 걷는 길

몇해전 이른아침 출근길에 올랐던 정천려명상점의 윤정금동무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낯모를 사람이 상점앞의 걸음길에서 깨진 보도블로크들을 세것으로 바꾸어 깔아놓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정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이였다.

《이렇게 깨진 보도블로크들이 있는걸 오늘에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윤정금동무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껏 상점의 앞뜨락이나 같은 걸음길에 깨진 보도블로크들이 깔려있는것을 보면서도 너무도 심상하게만 여겨왔던것이다. 사시장철 눈비바람과 피악발속에서 도로를 쓸고 또 쓸며 수도의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깨끗한 량심을 묻어가는 도로관리원들에 대한 존경이 윤정금동무의 가슴속에 소중히 움터났다. 그때부터 윤정금동무와 종업원들은 도로관리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왔다. 도로관리에 필요한 공구들도 마련해주며 도로관리원들을 위해 남모르는 지성을 바쳐가는 나날에 상점의 종업원들속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기풍이 더욱 차넘쳤다.

이곳 상점에는 영예군인가정 생일일지라는 류다른 책이 있다. 거기에는 정천구역에서 살고있는 3명의 영예군인들은 물론 그들의 안해와 자식들의 생일도 적혀있다.

영예군인가족의 생일날이면 윤정금동무와 종업원들은 성의껏 생일상도 차려주고 기념품도 안겨주군 한다.

어찌 그뿐이랴.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시거일에 즈음하여 그들은 만수대창작사에 높이 모신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에게 청향음료와 더운물을 공급해주고있다. 락랑제도전차사업소의 운전사와 차장을 위해 남모르는 지성을 바쳐온 황경남, 로은아, 김유미동무들의 소행도 있고 려명거리건설장에 지원물자를 안고갔을 때 걸싼 일솜씨로 건설자들을 놀래운 박옥, 송광숙, 신윤경동무들의 자랑도 있다.

인민들이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들을수 있게 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스스로 맡아 훌륭히 완성한 룡원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 정영철동무와 인민보안원들, 지난 수년간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는 부모없는 수십명의 처녀들의 생활을 친오빠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인민보안성 아래단위 로동자 김명국동무의 소행은 또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을 의무이기 전에 량심과 의리로 간주하는 참된 수호자들속에는 모란봉구역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인민보안원들과 길주군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들, 성간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 김정수, 평천구역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 고영철, 어느 한 단위 인민보안원 김광철동무도 있다.

인민을 위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쳐가는 불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하여 더욱 밝은 빛을 뿌리는 수호자의 별,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 별이 있어 내 조국이 굳건하고 사회주의대가정에는 언제나 따뜻한 정만이 차넘치는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련대성연단 진행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련대성연단이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조직위원회의 주최로 19일 로씨야의 쏘치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이 게양되여있었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련대성연단 2017.10.19 쏘치》라는 글발과 《조선은 하나다!》 등 주제의 선전화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청년학생대표단과 수십개 나라의 청년학생대표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국제기구 인사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가 울리고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터져오르는 속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이 행사장에 입장하였다.

행사에서는 보고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은 보고에서 련맹이 창립후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통일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려는 조선인민의 세기적념원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결과이다.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조선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지구상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국을 다스리고 깔들이는 나라는 오직 조선뿐이다.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과 청년들은 미국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세계민주청년련맹과 진보적청년들은 언제나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축전 로씨야민족존비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은 7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권위있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로씨야청년들은 조선반도에서 일어나는 사변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언제나 조선인민과 청년들을 지지할것이다.

1989년 조선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축전력사상 가장 성대하고 훌륭하게 진행된 본보기축전이다.

이번 축전을 계기로 로씨야의 청년조직들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세계에서 자기의 원칙을 버리지 않고 굿굿이 전진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고 하면서 승리는 반드시 조선의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세계평화리사회 집행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평화리사회는 미국이 유엔안보리사회를 사촉하여 조작해낸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전면배격한다.

그 어떤 제재나 강요로 조선의 반제자주적립장을 바꾸려는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은 다름아닌 미국의 핵위협에 있으며 이에 핵억제력강화로 맞서나가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변함없는 련대성을 보낸다.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의 인사들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제재압살책동의 악랄성과 부당성을 까밝히고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할것을 세계의 모든 진보적청년조직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보고와 연설들이 끝날 때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조선은 승리할것이다!》, 《조선의 자주적통일 만세!》,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만세!》,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양키는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등의 구호들이 우렁차게 울려퍼지였다.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전세계 진보적청년학생조직들에 보내는 호소문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자》가 랑독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립장과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내자.

미국은 장장 70여년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목적밑에 핵위협공갈과 경제제재, 국제적압박을 끊임없이 감행해오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였다.

이것은 미국의 침략적본성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인류의 념원인 평화와 안정은 호소나 동정으로는 이룩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들을 중지하며 남조선에 전개된 핵전쟁장비들을 포함한 모든 미군무력을 즉시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자.

미국이 해마다 방대한 무력과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벌리고있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과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들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침략적인 핵전쟁연습들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저들의 군대와 모든 핵전쟁장비들을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

호소문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미국의 교활한 민족리간술책을 단죄규탄하는 항의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끝으로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10월의 명절경축행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 《ㄷ.ㄷ》결성 91돐에 즈음하여 꾸바, 캄보자, 적도기네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 3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보서져있었다.

또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이 초대되였으며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캄보자 크메르민주당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각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 국제부 부부장을 비롯한 발언자들도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데 대해 언급하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시고 백승만을 떨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 폐막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21일 로씨야의 쏘치에서 폐막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을 비롯하여 세계 180여개 나라의 청년학생대표단과 대표들, 세계민주청년련맹, 라틴아메리카대륙대학생기구 등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 명예손님들이 축전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조직위원회 조정자인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니콜라스 파라디미프리오우는 이번 축전을 통하여 거둔 성과는 축전에 참가한 나라수나 인원수에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축전참가자들이 친선과 평화, 련대성의 리념을 안고 자기 조국으로 갈수 있게 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살인과 파괴를 일삼으며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단결하여 평화와 련대성, 정의를 위한 반제투쟁을 강화하며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데 대해 호소하였다.

폐막식에 앞서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최종선언이 채택되였다.

최종선언은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지배와 간섭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여러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최종선언은 특히 국제무대에서 조선인민을 모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파괴》를 공공연히 부르짖은 미국집권자의 망발을 단죄, 규탄하고 위험천만한 핵전쟁위협과 극악한 제재속에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전겁히 싸우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종선언은 전세계청년학생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투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을 호소하였으며 앞으로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의 가장 큰 국제적회합인 축전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그 반제전통을 고수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특대형추문사건을 뒤집기 위한 음모책동

최근 남조선의 극우보수패당이 초불민심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광대극을 벌려놓았다. 이자들이 박근혜의 구속기한이 10월 16일에 끝나게 되는것을 계기로 구속기한연장을 가로막고 역도에게 불리한 재판국면을 완전히 뒤집어보려는 흉악한 기도밑에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조작된것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드는 추태를 부린것이다.

박근혜잔당들의 소굴인 《대한애국당》것들은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당시 피뢰역도의 선거본부에서 일했다는 신해원이라는 년을 내세워 박근혜탄핵의 발단으로 되였던 최순실의 콤퓨터가 실제로는 자기의것이라고 증언하는 《랑심선언》놀음을 벌려놓았다.

신해원이 시키는대로 《랑심선언》이라는것을 하자 《대한애국당》의 보수떨거지들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JTBC》방송이 거짓선동을 하였다.》, 《특검과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란동을 부리고있다. 이때라고 생각한 리상로를 비롯한 극우보수혼잭들도 박근혜탄핵이 《언론과 검찰이 조작한 사기극》이라는것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초불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속았거나 위선자》들이라고 악담질을 해댔다. 한편 《자유한국당》내의 김진태, 홍문종을 비롯한 박근혜잔당들은 최순실콤퓨터의 《진짜주인이 나타났다.》, 《검찰이 쟁통임이 드러났다.》고 불고늘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다 죽게 된 신한하녀를 살려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돈에 매수된 인간추물들을 내세워 가짜 《랑심선언》까지 시키며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뒤집어엎으려고 생억지를 부리고 검은것도 희다고 우겨대는 보수역적무리의 뻔뻔스러운 망동은 뻐뚝도 낯을 붉힐 정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에 남조선의 《JTBC》방송은 최순실이 버리고 달아난 콤퓨터에서 박근혜의 많은 연설문초안과 그 수정본화일들을 찾아내여 공개하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정국을 소란케 하던 최순실의 《국정》개입설은 더는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 증명되고 죽가마끓듯 하던 민심의 분노는 활화산마냥 폭발하였다.

당시 이러한 사태에 바빠맞은 박근혜역도는 황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이 자기 연설문들을 수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인민들앞에 그에 대해 《사과》한다는 김빠진 녀두리까지 늘어놓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피뢰국우보수패거리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죄행위를 전면부인하는 서푼짜리 정치모략극을 꾸며내고 지랄을 부리고있는것은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초불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박근혜역도와 함께 지리멸렬당하게 된 극우보수패거리들은 앙심과 독기를 품고 어떻게 하나 판을 뒤집어 복수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이자들이 벌려놓은 거짓 《랑심선언》광대극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하지만 반역의 무리가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역도의 비참한 운명은 절대로 돌려세울수 없다. 얼마전 《JTBC》방송측은 극우보수패거리들이 들고나온 《콤퓨터조작》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자료적으로 반박하면서 콤퓨터가 최순실의것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하였다. 피뢰법원도 신해원의 《랑심선언》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으로 묵살해버리고 박근혜역도의 구속기한을 다음해 4월 16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극우보수패거리들은 또다시 반발해나서면서 《진실은뭐》니, 《정치보복》이니 하고 악의에 찬 망발을 줴쳐대고 지어 무기한 단식놀음까지 벌리고있다. 한편 최순실의 《국정》롱단사건의 물적증거로 되였던 콤퓨터가 다른 사람의것이라는것이 《확인》되였으므로 박근혜탄핵자체가 재검토되여야 한다는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황당한 수작질을 계속해대고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극우보수패거리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심만 더욱 고조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대한애국당》의 극우보수떨거지들이 벌려놓은 가짜 《랑심선언》놀음을 통해 자신들이 박근혜탄핵과 《정권》교체에 도취되여있는 동안 보수패당이 복수의 칼을 갈며 부활하기 위해 잠시도 가만있지 않았다는것을 새삼 깨닫고있다. 더우기 리상로와 같은 보수패분가들이 초불투쟁참가자들을 《위선자》로 조롱하며 모독하고있는 경악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며 사태가 어떤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소스라치게 느끼고있다.

만일 남조선에서 극우보수패당의 기도대로 형세가 뒤집혀지고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다시 활개치게 되면 어떤 처참한 《마녀사냥》, 보복류혈전이 벌어지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피뢰보수패당이야말로 씨도 없이 철저히 박멸해버려야 할 남조선사회의 악적존재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악성종양은 제때에 제꿋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패당의 발악적책동에 한시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반보수투쟁, 적폐청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력사의 오물인 역적무리들을 말끔히 쓸어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장정철

경악을 자아내는 특등범죄행위

박근혜패거리들이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청와대문건들을 제멋대로 조작한 사실이 새롭게 폭로되였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박근혜역도에게 처음으로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해 보고된 시점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이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후에 작성된 《세월》호침몰사건 《상황보고일지》라는데는 그 시점이 30분이나 늦은 오전 10시로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박근혜패당이 청와대문건을 고의적으로 조작변경시켰다는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여 박근혜패당은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한 소식을 보고받은 시점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30분간이나 의도적으로 늦추어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박근혜패당은 《세월》호침몰사고가 있은 후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안보실이 《모든 재난관리의 사령탑》이라고 명시되여있는 《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여 맡아본다.》고 제멋대로 수정하는 뻔뻔스러운 짓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박근혜패당은 저들이 조작변경시킨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세월》호침몰사고가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점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이며 박근혜는 보고를 받은 다음 15분만에 사태를 수습할데 대한 첫 지시를 내렸다느니, 청와대안보실은 《재난구조를 지휘하는 사령탑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저들의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죄악을 가리우려고 발악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자료들에 의해 그것이 범죄적인 문건조작에 따른 철면피한 책임회피극이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박근혜와 그 졸개들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저지른 엄청난 범죄의 증거자료들이 새롭게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각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가 사고발생직후 종적을 감추었던 7시간이 이제는 7시간 30분으로 되였다, 박근혜가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점과 첫 지시사이의 시간간격을 최대한 줄이려고 꾀하였다는것이 립증되였다고 하면서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고있다.

특히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그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청와대홈페지에 《오보피담 바로잡기》라는 항목까지 만들어놓고 민중을 기만우롱하는 등 오직 박근혜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 미쳐돌아갔다고 격분을 표시하면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런 속에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문건조작변경범죄수사가 검찰당국에 정식 의뢰되였다.

박근혜패당이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한 문건들을 조작변경시킨것은 수백명의 나어린 생명들을 통째로 바다속에 수장시킨 특대형범죄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한 실로 비렬한 술책으로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물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주장이다.

박근혜역도와 그 패거리들이 집권기간 저지른 범죄사실이 드러난것은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박근혜패당이 피뢰군싸이버사령부를 통해 여론조작용 《지하해킹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해온 사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사실,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탄압박해한 사실, 야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을 시도한 사실 등을 담은 문건들과 관계자료들이 공개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물어리치는 《유신》독재체제를 부활시키면서 남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인권의 황무지로 만든 박근혜역적패당의 파쑈적망동에 각계층 인민들은 치를 떨고있다.

얼마전에는 박근혜패당이 2014년초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을 위한 9차협의를 진행하면서 미군기지의 특수정보시설을 짓는데 막대한 건설비를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밀약한 사실,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한 여론공작을 막후에서 조종한 사실까지 드러나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으며 부귀향락을 누리고 권력욕을 채운 추악한 매국반역의 무리이다.

박근혜역적패당의 범죄증거자료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수 없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박근혜는 사형을 받아도 모자란다.》고 격분을 터치면서 역도년과 그 일당을 살려두어서는 안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분계는 박근혜와 공모결탁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른 피뢰보수패당이 새롭게 폭로된 피뢰역도의 범죄사실을 헌 당국이 파헤치는데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민심에 악랄하게 역행해나서고있는것이다. 이것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도와 같고같은 추악한 범죄집단으로서의 피뢰보수패당의 정체를 다시금 꿰뚫어보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집권기간 천추에 용납 못할 온갖 특대형범죄들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감추고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별의별 비렬한것을 다 일삼은 박근혜역도와 피뢰보수패거리들을 남조선인민들은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며 반드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민중승리의 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5일 서울광장에서 민중당결성식이 진행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선언문이 랑독되였다.

선언문은 민중을 위한 정치가 오늘 최대의 정치적과제라고 밝혔다.

남조선정치는 1%도 되지 않는 외세와 보수세력을 일방적으로 비호해왔다고 선언문은 단죄하였다.

선언문은 1700만 민중의 총궐기로 이루어낸 초불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권력을 리용하여 정치를 롱락한 세력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고있지만 적폐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있으며 사대외교정책과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 재벌중심의 경제정책도 그대로이라고 선언문은 지적하였다.

결과 남조선사회는 무권리상태에 놓인 청년과 비정규직로동자, 농민과 녀성의 한숨으로 가득차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정화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선언문은 밝혔다.

선언문은 민중당이 승리를 향한 민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할것이며 민중자신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민중승리의 시대를 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 앞서 민중련합당과 새민중정당은 합동회의에서 통합하는 당의 명칭을 민중당으로 확정하고 기본정책을 결정하였다.

영국단체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규탄하여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수역에서 최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다고 하면서 그 방대한 규모에 대해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 연습은 침략전쟁의 전주곡으로 되며 조선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켜 조선인민을 미제국주의와 세계독점자본의 노예로 만들려는 음치한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할것을 요구한다.

제재반대! 전쟁반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조직할것을 요구

남조선의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16련대가 14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조직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박근혜《정부》시기 청와대가 《세월》호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한 시간을 조작하였다는것이 드러났다고 까밝혔다.

청와대가 중요한 시각에 희생자들에 대한 구조에 나서지 않은것을 감추어보려고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압박하였다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를 위한 대규모의 초불집회를 가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 어떤 침략책동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주체의 핵강국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유엔무대에서 감히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미치광이망발을 줴치며 세상을 경악케 한 미국의 전쟁광배 트럼프는 얼마전 군무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폭풍전야의 고요》니, 《단 한가지 효과》니 하는 폭언을 또다시 늘어놓으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살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런 속에 미제호전광들은 남조선에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집결시키고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것은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조치를 가로막으려는 발악적인 책동이다.

대미추종의식이 골수에까지 짝 들어찬 남조선괴뢰들은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의해야 한다.》는 쌀개빠진 망발을 내뱉으면서 상전의 위험한 북침전쟁책동에 덮어놓고 맞장구를 치고있다. 한편 《작전개념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느니, 《3축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느니 하고 날뛰면서 군사적대결의 광풍을 사납게 일구고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도발책동은 력사상 있어본적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로악무도한 광란이다. 그러나 그 어떤 침략적도전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원쑤들의 핵전쟁도발책동과 제재압박소동을 짓부시며 국가핵무력건설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완수하려는 전만군민의 억세 의지를 허물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에로 줄달음치는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전만군민의 거세찬 진군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군사, 경제 등 각방면에 걸쳐 압력을 최대로 강화하면 우리가 굴복할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이 들고나온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나 괴뢰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도 그러한 헛된 기도의 산물이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아무리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 그로 하여 어떤 전지지변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주적인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백승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절대로 꺾을수 없다.

우리가 천신만고하며 억척으로 다져놓은 자위적핵억제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압력을 가한다고 하여 포기할 흥정물이 아니다. 그것은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완전히 잠재내고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자위의 보검이다.

미국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끈질기게 감행하고있다.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은 지금 최절정에 이르고있다.

미제는 악명높은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면서 우리를 겨냥한 선제공격훈련들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우리의 문전에서 벌어지는 북침전쟁물장난의 규모가 사상 최대로 확대되고 《대북작전》방식도 《참수작전》과 같은 극히 도발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를 한사코 압살하려고 미친듯이 덤벼들고있는 지금 자주권수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정의의 핵으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리는것뿐이다.

허리띠를 조이며 무적의 핵억제력을 다지였기에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걷음걸음 짓부시며 자주권을 굳건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적승리와 사변적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현실은 우리가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국가핵무력완성의 길을 다그쳐온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될수록 자위적핵억제력을 억척으로 다져나갈 우리 전만군민의 의지는 더욱 억세여질것이며 국가핵무력완성속도도 그만큼 빨라질것이다.

우리가 병진의 길을 선택한것은 결코 눈앞의 위협을 제거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핵무력완성은 우리의 국가전략에 따른것이며 우리는 이미 정한 시간표에 따라 전진하고있다.

강력한 총대우에 자주적인민의 참된 존엄과 삶이 있고 무적의 국력우에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 미국의 무지막지한 침략적전횡앞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 국제사회의 참혹한 현실은 강력한 군사력이자 곧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며 참된 부강번영의 길이라는 진리를 더욱 뼈저리게 새겨주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전진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한번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도 병진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

우리는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휘몰아친다고 하여도 병진의 기치높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횡포무도한 핵전쟁도발책동과 야만적인 제재압살소동을 짓부시며 최후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은정철

ㄱ-71168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